

24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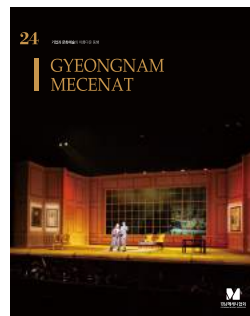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GYEONGNAM MECENAT



발 행 인 손교덕
 편 집 인 신병철
 진 행 이지예
 발 행 일 2018. 1. 1
 발 행 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3층
 Tel. 055. 285. 5611 Fax. 055. 286. 5610
 홈 페 이 지 www.gnmecenat.or.kr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 296. 4995
 인 쇄 경남신문사 Tel. 055. 210. 6000

※이 책은 경상남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VER STORY

오페라 <돈 파스칼레>

2017년 하반기에는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든 '오페라'가 김해, 진주 두 곳에서 상연됐다. 4개 단체가 협업해 만든 김해 <돈 파스칼레>와 3개 단체가 참여한 진주 <도니제티 페스티벌>은 단일단체가 하기 어려웠던 오페라 공연을 가능하게 한 첫 시도로서 높게 평가받는다. 사진은 10월 10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돈 파스칼레> 공연 중 일부 장면이다.

Contents

● 메세지	04 회장 인사말
● 스페셜테마	06 웃음과 감동의 오페라 <돈 파스칼레> 10 '묘약'같은 공연 <도니제티 페스티벌>
● 포토포엠	14 Top of the world
● 아름다운동행	16 신성델타테크(주) + 경남심포닉밴드 17 (주)경한코리아 + 한사랑다문화합창단 18 (주)세영 + 굿뉴스합창단 19 제이엘렌 + 클랑 20 (주)고려철강 +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전수관
● 인터뷰	22 행복한 만남_ the큰병원 박창석 + 창원미협 천원식 26 CEO를 만나다_ 원광종합건설(주) 조성제 대표 30 예술인을 만나다_ (사)국악관현악단 휴 송철민 대표
● 결연단체후기	34 창원시남성합창단 베트남 해외공연
● 메세나소식	36 2017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 38 2017 경남메세나대회 44 2017 행복한 문화나눔
● 엔조이컬처	46 도심 속 문화공간 I _ 고택에서 '야행(夜行)'하다 50 도심 속 문화공간 II _ 일상 속 갤러리

Greeting Message

무술년 새해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반갑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회장 손교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저희 메세나에 있어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기업과 함께 165개의 예술단체를 후원하였으며 후원금액만 30여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 첫 창간한 회보지 '경남메세나'도 어느덧 24호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봐 주시고 도움 주신 여러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꺼이 예술 후원에 나서 주신 기업인 분들과 꾸준한 활동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해준 예술인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0년간 경남메세나가 지역경제와 지역예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메세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경남메세나협회장

Special
Theme

지역에서 꽃피운 오페라

2017년 하반기 두 편의 대작 오페라가 경남지역에서 상연됐다.

김해와 진주에서 상연된 두 편의 오페라는 복수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며, 제작환경이 쉽지 않던 지역 오페라 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10월 10일, 11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선보인 <돈 파스칼레>와 12월 29일, 30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도니제티 페스티벌>의 리허설 현장을 찾아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배우, 주최자들을 만났다.



4개 단체 협업해 만든 웃음과 감동의 오페라 돈 파스칼레

Writer. 이희경 Photographer. 메세나



오페라는 제작 면에서 큰 모험이다.

무대, 의상이 화려해 제작비용이 큰 데다 대작 하나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출연진, 스태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 단체들의 협동무대는 이러한 오페라 공연의 제작비용을 줄이는 데에
큰 보탬이 되었다.

마지막 리허설 현장에서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11일 양일 간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김해가야오페라단(단장 강동민) 주최로 따스미문화예술단(단장 정승화), 디엠솔리스트앙상블(단장 강다현),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단장 장미경)가 도니제티의 그랜드오페라 <돈 파스칼레>를 선보였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4개 단체가 함께 공연을 준비해 의미부터 남달랐다.

마지막 리허설 현장을 찾았을 때는 조명이 환히 켜진 무대 위에 배우들이 실전처럼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서 있었다. 무대 밑에는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가 앉아 희미한 조명을 의지하며 조용조용히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마지막 연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대 양쪽에 마련된 대형 화면에서는 단원의 대사, 노래에 맞춰 한글 번역이 나오고 있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기획·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동민 단장은 “이번 연주회는 그

동안 바쁘게 달려온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페라는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아름다운 아리아가 오페라 애호가는 물론 처음 접하는 관객들까지 자연스럽고 극과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총각 파스칼레의 연애기

오페라 <돈 파스칼레>는 구두쇠 노총각 돈 파스칼레의 좌충우돌 연애스토리와 우아한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벨칸토의 대표적인 오페라 중 하나이다. 주최측은 아름다운 아리아를 통해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풍자적 요소들을 가미해 시대를 뛰어넘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1막은 말라테스가 ‘천사처럼 아름다운’을 부르자 돈 파스칼레는 격하게 환영하며 ‘아,

내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솟아 오르네. Ah, unfucom solito’ 노래했다. 조카 에르네스토는 노리나와 결혼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달콤하고 순수한 꿈이여, 안녕! Sogno soave e casto’라는 감미롭고도 애처로운 아리아를 불렀다. 2막은 ‘먼 땅을 찾아서 Cercher lontana terra’라는 곡으로 돈 파스칼레, 의사, 에르네스토, 노리나의 훌륭한 4중창이 어우러졌다. 3막에서는 ‘아름다운 밤 Chem gentil’이라는 세레나데와 ‘다시 한 번 사랑의 말을 Tomami a dir Chem’ami’ 사랑의 2중창이 이어졌다.



오페라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장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오페라가 어렵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다. 시대에 맞는 번역을 시도하고 부분부분 코믹한 부분을 넣어 감동과 재미를 더해 관객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오페라는 제작 면에서 큰 모험이기도 하다. 무대, 의상이 화려해 제작비용이 큰 데다 대작 하나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출연진, 스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 단체들의 협업 무대는 이러한 오페라 공연의 제작비용을 줄이는 데에 큰 보탬이 되었다. 여기에는 단체들 간 지속적인 교류가 결정적이었다. 김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어서 공연 준비, 연습에도 차질이 없었다. 강동민 단장은 “오히려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함으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면서 “오페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경남메세나 협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예술 감독 성정하, 지휘자 정금련, 연출자 박용민이 참여했다. 테너 김성진(인제대 교수)을 비롯해 베이스 최현욱, 박순기 테너 이해성, 바리톤 최대우, 김기환, 소프라노 설은경, 강나래 등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과 지역 음악가를 배려, 오디션으로 선발한 신인 성악가 무대도 마련했다. 10월 11일 오후 3시 공연은 신인 성악가들로 준비했다. 베이스 박현우, 테너 김보우, 바리톤 강다빈, 소프라노 이유빈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베이스 이준오)도 있다. 국내 최정상급인 노련한 배우들의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더해 신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무대를 선물했다.



공연을 기획한 강동민 단장은 미래의 관객인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았다. 그들이 오페라를 경험해야 나중에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성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3시 공연을 기획했다. 기획한 3시 공연은 가장 먼저 매진되었다. 매회 전 좌석이 매진으로 성황리에 공연한 <돈 파스칼레>를 보며 가야오페라단을 비

롯해 따소미문화예술단,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단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4개 단체가 연합하여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후원을 받았다. 후원기관 및 기업은 경상남도와 김해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좋은데이나눔재단, 남명, 한영레이저, ㈜휴롬, 김해센텀병원이다.



좌측부터 강동민, 강다현 단장, 김선주 국장, 정승화 단장

Q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공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요.

—— 강동민 • 한 단체가 공연을 하게 되면 경남메세나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아직까지 김해는 우리 기업들의 예술에 대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4개 단체가 함께 하면 그랜드오페라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경남메세나협회에 자문을 구했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성악, 오케스트라 등 다른 분야의 예술 단체장들께 함께 하자고 제안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 강동민 • 다들 좋아했죠, 한 단체가 하기 힘든 공연이니까요. 그랜드 오페라를 올린다는 그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4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이런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뜻이 모아진 거죠.

Q 강동민 단장님이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정승화 • 큰 기업에서 지원을 해준

다거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한 단체의 힘으로 오페라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사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한 편을 제대로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 단장님께 먼저 알아보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저희한테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Q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바라는 점은 없었나요.

—— 정승화 • 생각보다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강 단장님께서 제안서라든지 서류상으로도 문제없게 너무나 일을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에서는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문화 아니면 예술후원인ده요. 반대로 어려운 때일수록 오페라든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잠시라도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큰 지원 못지않게 공연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관객분들이 더 많

MINI INTERVIEW

“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소중한 기회 ”

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소액이라도 단체를 후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테고요.

Q 이번 공연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 김선주 • 사회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모두에게 많이 힘든 시기인데 코믹한 오페라를 접하면서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김해를 포함해 경남지역에서는 신인한테는 무대가 잘 주어지지 않는데요. 강 단장님이 신인들에게 기회를 준 점도 좋았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생과 전공 재학생들에게까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그 친구들이 거의 합숙하다시피 연습을 했어요. 보통 6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어서야 끝내는 경우도 있고,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 후원기업들과 관객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페라와 사랑에 빠지는
‘묘약’ 같은 공연

도니제티 페스티벌



Writer. 손상민 Photographer. 윤오건

12월 23일 크리스마스이브를 앞두고
경남성악회, 폭스컴머앙상블이 주최하고
(사)경상오페라단이 주관한
<2017 도니제티 송년오페라> 공연
연습현장을 찾았다.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후 7시, 3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연을 예정해 둔 막바지 연습이었다.

"한순간도 무표정해서는 안 돼"

“여기 젊은 청년도 여기 과부도 이 약을 써 봐요. 싸게 팔 때 사가요. 중풍도 고치고 율화병도 고친다오. 천식, 빈혈, 히스테리, 당뇨병 모두 다 고칠 수 있소. 귀얄이, 결핵, 구루병도 문제없지! 요즘 간장 안 좋으신 분들 많은데 이 약만 드셔 보라니까. 다 사시오. 다 사시오. 신비한 이 약을. 아주 싸답니다. 아주 싸답니다. 훌애비도 과부도. 이 약을 써보세요!”
“자, 합창단 이 쪽 편은 왼쪽 이 쪽 편은 오른쪽으로!”

속사포처럼 쏟아 붓는 약장수 돌카마라의 말이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동안 홍민정 연출가는 그를 둘러싼 합창단원들의 동선을 체크하기 바쁘다. 돌카마라 역의 김의진 성악가는 연출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가사를 소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간혹 말이 꼬여 멈췄다가도 다시 반주에 맞춰 연습을 이어갔다. 워낙 빠른 템포의 곡이어서 듣는 이도 숨이 가쁘게 느껴질 정도다. 19세기 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노래는 <사랑의 묘약> 전반부에서 돌카마라가 약의 효능을 설명하는 곡 ‘들어봐요, 들어봐요! 오 농부여!’이다.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농촌 총각 네모리노가 아디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랑의 묘약’을 선전하는 것이다.

“자. 합창단은 한순간도 무표정하게 있으면 안돼요. 얼굴에 경련이 일 정도로 표정을 잘 잡고 있어야 해요.”
합창단이 동작을 바로 잡는 사이, 홍민정 연출의 지시가 이어졌다. 합창을 맡은 경상대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에 임했지만 간간이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듯 입술을 꼭 다물기도 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이브를 앞두고 경남성악회(회장 윤오건), 폭스컴머앙상블(회장 김효주)이 주최하고 (사)경상오페라단(단장 최강지)이 주관한 <2017 도니제티 송년오페라> 공연 연습현장을 찾았다.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후 7시, 3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연을 예정해 둔 막바지 연습이었다.

<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한 자리에서

주관단체인 경상오페라단 단장이자 예술감독인 최강지 단장은 <2017 도니제티 송년오페라>에서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제티의 유명 오페라 <돈 파스칼레>와 <사랑의 묘약>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구성했다. 1, 2막으로 인터미션을 두고 상연하던 전막 오페라를 원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압축해, 편당 90분짜리 두 편의 공연으로 만든 것이다. 진주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최초의 시도다. 최강지 단장은 “시민들에게 두 작품을 한 번에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소극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돈 파스칼레>를 다시 보여드린다는 의미도 크다.”고 기획배경을 밝혔다.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오페라 가운데 최고의 작품과 배우들을 시상하는 국내 오페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러한 시상식에서 시상의 꽃이라 할 ‘작품상’(최우수상)을 지역 단체가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연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게다가 이 작품 정말 재미있다. 연습현장을 통해 미리 본 <돈 파스칼레>는 ‘오페라는 지겹다’는 편견을 산산이 부순다. 경남성악회 윤오건 회장과 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단장이 각각 돈 파스칼레와 마라테스타로 분하는 <돈 파스칼레> 연습장면에서는 희극적 요소가 배가

되어 마치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다. 어깨 바로 위로 떨어지는 장발의 곱슬머리를 한 윤오건 성악가가 보여주는 늙은 독신 거부인 주인공 돈 파스칼레는 외모나 체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실전 못지않은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은 관객을 웃고 울리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연습장을 꼭 채우고도 남을 성량으로 노래하면서도 넘어지고 부딪히는 몸개그에 가까운 희극적 동작들을 함께 해낸다는 사실에 놀라울 새도 잠시, 어느새 극에 흠뻑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오페라

<2017 도니제티 송년오페라>는 두 편을 한 번에 공연한다는 새로운 기획 외에도 한 단체가 아닌 2개 단체가 모여 하나의 공연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 모든 예술의 집약체가 오페라인 만큼 상당한 제작비가 들 수밖에 없는 공연 환경에서 고심 끝에 단체가 선택한 방법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진주제일병원, 바른병원,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진주성형외과, 이성수안과, 한국남동발전 등 진주지역 내 6개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 하나의 공연이지만 2개의 단체가 후원을 받을 수 있어 오페라 공연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역의 공연이지만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경남지역 외 서울, 부산, 광주, 미국에서까지 각지에서 모인 최고의 성악가, 스탭들로 공연을 준비했다. <사랑의 묘약>에서 주인공 아디나 역의 이윤지 성악가는 공연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날아올 정도의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전옥용 지휘자는 창원에서, 홍민정 연출가는 서울에서 달려와 연습에 참여했다. 스탭도 대다수가 서울에서 왔다. 지역에서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데다 최고의 공연을 위해 각 분야 최고들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앞두고 만든 전단지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썬~~나는! 도니제티 송년오페라”라는 광고 문구가 쓰였다. 연습현장에서 만난 두 작품은 ‘썬~~나는’ 오페라가 결코 허언(虛言)이 아니란 걸 확인시켰다. 인터뷰를 마치며 연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다는 말에 돈 파스칼레 역을 맡은 윤오건 성악가는 “오페라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어요. 그건 성악가도 마찬가지고요.”라며 웃었다.

연습현장을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뒀에 붙잡힌 걸까. 연습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내내 귓전에서 울리는 오페라 아리아가 잊히지 않아 유튜브로 곡을 찾아 들었다. 내게는 도니제티의 오페라가 오페라와 사랑에 빠지는 ‘묘약’이었던 셈. 웬지 한동안 헤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이다.

MINI INTERVIEW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공연 선보이고 싶어

Q 여러 단체가 함께 공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최강지** • 한 단체가 오페라를 모두 준비하기에는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경상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경남성악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을 준비하기에 어렵지 않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함께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경남성악회와 경상오페라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 **윤오건** • 경남성악회는 1994년에 결성돼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성악인들의 연구, 발표 단체입니다. 오페라처럼 재미있는 내용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 활동해온 단체이기는 하지만 젊은 성악가들이 주축이 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성악의 꽃은 오페라



경상오페라단 단장 최강지

이기 때문에 경남성악회 역시 오페라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과 만날 기회를 늘리고 싶었던 터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강지** • 경상오페라단은 1년에 적게는 5편에서 많게는 10편까지 크고 작은 오페라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오페라 전막을 공연하고 있고요. 서부 경남의 유일한 오페라단인 만큼 다른 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이나 공동기획을 적극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오페라를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Q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최강지** • 전국 각지의 성악가들, 스탭을 모시고 공연을 준비하려니 연습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성악가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공연을 올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공연에는 경남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광주, 부산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날아와 공연에 참여해준 성악가도 있습니다. 제작비 자체만으로도 많은 금액이 필요한 오페라 공연인지라 멀리서 찾아와 준 최고의 성악가, 스탭들에게 개런티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홍보비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지역 언론에서 기사화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 혹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 **최강지** • 내년 상반기 오페레타 공연과 연말 <남명 소식>이라는 창작오페라를 준비중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올해처럼 내년 이즈음에도 여러 단체가 함께 새로운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길 기대합니다.



경남성악회 회장 윤오건



Top of the World

태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산들의 신이 사는 마차푸차레봉과
수확의 여신 안나푸르나봉에
불을 밝히며 새날을 알렸다
세계의 모신(母神) 에베레스트에서
그 찬란한 아침을 다시 맞는다

고도 6,500m 상공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바라보며.
창동예술촌 촌장 · 사진가 라상호



01 아름다운 동행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경남심포닉밴드와 함께 한
신성델타테크㈜ 30주년 기념행사



신성델타테크㈜(대표 구자천)는 10월 21일 창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평택, 양주, 서울 직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법인 직원들까지 참석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며 회사 직원들이 평소 사용하는 말로 행사는 시작 되었다. 행사 1부에는 창립기념식으로 30년 동안의 기념 영상과, 시상식(모범사원, 장기근속자, 감사패), 소년소녀가장 선물전 달식 2부는 비전선포식(비전선포식, 경영목표 달성 및 노사화합 조인식, 축하공연) 3부는 한마음 전진대회(직원장기자랑, 창립 30주년 기념 회장기 축구대회),시상 및 경품추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공연으로 경남심포닉밴드(CWNU 오케스트라, 대표 서정두) 공연이 있었다. 바리톤 김기환, 소프라노 백향미, 경남



심포닉밴드는 아름다운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줘 신성델타테크 직원들과 내빈들의 마음을 가을 단풍처럼 곱게 물들였다. 특히 바리톤 김기환이 ‘I Believe’를 소프라노 백향미가 ‘나 가거든’에 이어 듀엣 곡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메들리 공연을 펼쳐 신성델타테크 직원 가족들의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경남심포닉밴드(Gyeongnam Symphonic Band)는 밝고 화려한 음색과 세련된 감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젊은 윈드오케스트라이다.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적 수준을 높이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관악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다. 크고 작은 음악회와, 시민과 소통하는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경남심포닉밴드가 이날 창립 행사에 함께 한 것은 경남심포닉밴드 서정두 대표와 신성델타테크㈜ 구자천 대표와의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평소 색소폰 연주가 수준급인 구자천 회장이 경남심포닉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경남심포닉밴드를 후원하기에 이르렀다.

경남심포닉밴드의 공연은 신성델타테크 ‘창립 3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한층 더 빛나게 해 주었다.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어 지루해 질수 있는 행사를 예술이 함께 함으로 그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져 참석한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선물한 것이다. 신성델타테크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02 아름다운 동행

피부색은 달라도 목소리는 하나

㈜경한코리아 후원
한사랑다문화합창단 정기연주회

“How gentle is the rain...” 떨리는 목소리가 소극장에 울려 퍼졌다. 이주민 여성 미셀의 목소리였다. 이어 분홍빛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단원들이 합창을 시작했다.

지난 12월 7일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한사랑다문화합창단(단장 방미혜)의 제8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초겨울 한파에 400석 넘는 소극장 1층은 한산했지만 합창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이들의 기운으로 꽉 찼다. 올해 새로운 지휘자로 영입된 이정훈 지휘자의 해설도 어느 공연장처럼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는 데 한 몫 했다.

한사랑다문화합창단은 2010년 창단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중국, 일본 등 결혼 이주여성들과 (사)마산사랑의 전화 상담원들이 매주 한 번 함께 모여 연습하고 공연하는 여성합창단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5명의 이주여성이 참여했다. 해마다 참여하는 이주여성의 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언어가 다르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참여가 힘든 이주여성들에게 매주 한 번 연습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8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함께 해온 이도 있다. 공연 전 만난 입단 4년차 이주여성 마르셀라는 “사람들이 좋고 노래가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라며 연신 웃음 지었다. 방미혜 단장은 “메세나로 결연을 맺은 지는 3년이 되었어요. 쟁쟁한 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라며 결연 기업과의 인연으로 합창단의 실력을 한 차원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고 전한다. 합창단은 자신들을 후원하는 ㈜경한코리아에 보답하고자 지난 10월 이상연 대표의 경남대학교 명예박사 수여식에서 합창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A Lover’s concerto’로 시작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훨훨 날아요’, 장구 연주가 가미된 ‘아름다운 나라’를 연이어 들려준 후 초청단체인 새로미가곡합창단과 여성지적장애인 핸드벨 연주단체인 소리샘벨파이어의 공연을 사이에 배치했다. 지역주민으로 공연 소식을 듣고 공연장을 찾았다는 성미숙 씨(52)는 “합창을 직접 들으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며 “핸드벨 연주는 처음 봤는데 많은 인원이 벨소리만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공연은 ‘걱정 말아요 그대’ 등 세 곡의 가요로 마무리됐다. 이주여성들에게는 어려운 곡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서로의 언어를 익히며 화음을 맞추는 일이 어렵지만 가치 있다는 걸 단원 못지않게 관객들에게도 와 닿은 시간이었다.



굿뉴스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가 12월 7일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있었다. 단원들은 첫 무대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 ‘O Lord Our Lord’, ‘예수의 보혈’을 불렀다. 조용하면서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이어 등장만으로도 관객에게 미소를 선사하는 발랄하고 깜찍한 초청단체 경남리틀싱어즈의 공연이 있었다.

두 번째 무대에서 단원들은 양쪽 출입문에서 함께 등장하며 ‘Moses’를 불렀다.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지도자를 향한 반란과 화해를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각자 개성 있는 표정과 동작을 취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무대가 끝나자 피아니스트 김희재가 특별출연해 ‘Fantasie und Fuge uber BACH’ 곡을 연주했다. 피아니스트 김희재는 한국쇼팽콩쿠르 1위는 물론, 영국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



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다. 꾸밈없으면서도 화려한 연주로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Lightning’이라는 곡을 불렀다. ‘번개’라는 의미처럼 관객들에게 번개처럼 다가 온 하이라이트 곡이었다. 번개를 표현하기 위해 입은 의상과 안무가 어우러져 박수가 쏟아졌다.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앵콜’을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이에 화답하듯 굿뉴스합창단은 앵콜곡으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불렀다.

안정옥 단무장은 “매년 무대를 준비 할 때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라며 “어려운 시대 용기와 위로가 되는 곡을 들려주기 위해 단원들과 지휘자 모두가 합심해 준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합창의 하모니는 물론, 관객들이 지루할 틈 없도록 곡마다 울동을 붙여 노래와 함께 소화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해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굿뉴스합창단은 올해부터 (주)세영의 박영숙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맞이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다. 합창단은 해마다 개최하는 연주회는 물론, 기획연주, 초청연주, 등을 통해 여성만이 갖는 섬세하고 우아한 하모니로 감동을 주는 공연을 진행하고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꿈과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경남메세나의 지원을 받고, 결연기업인 (주)세영과 경상남도, 경남기록문화원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03 아름다운 동행

어려운 시대 용기와 위로 전해

(주)세영 후원
굿뉴스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04 아름다운 동행

4대의 피아노로 선보인 앙상블의 매력

제이엘렌 후원
클랑 제2회 정기연주회

무대 위 네 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올랐다. 피아노 한 대에 연주자 둘, 모두 합쳐 무려 80개의 손가락이 연주하는 화음은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찾았다. 연습하기조차 버거웠을 네 대의 피아노 앙상블 공연을 볼 흔치않은 기회가 있었다. 지난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있었던 클랑의 ‘4대의 피아노’ 공연이 그것이다.

독일어로 ‘클랑(Klang)’은 종소리가 내는 소리를 표현한다. 일종의 이성어인 셈이다. 피아노앙상블 연주단체인 클랑(회장 한예란)의 이름은 은은한 종소리가 멀리 퍼지듯 피아노 선율이 마음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단원들의 뜻을 담았다.

리플릿 첫 장에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는 모차르트의 말을 선명하게 새겨놓은 이유를 설명하듯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4대의 피아노에 8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했다. 두 번째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6번으로 두 대의 피아노 두 명의 연주자가 호흡을 맞췄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6개 손을 위한 ‘왈츠와 로맨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왈츠’를 연주하며 피아노 앙상블의 매력을 한껏 뽐냈다. 관객 역시 매 연주가 끝날 때면 큰 박수로 답했다. 객석에는 유독 초중고생 관객들이 많았는데 연주에 몰입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중학생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정은영 씨(46)는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는 처음이라 신기할 따름이에요.”라며 “연습이 쉽지 않았을 텐데 틀린 음이 들리지 않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후반 연주에서는 스페셜게스트인 스트링콰르텟이 피이졸라의 ‘망각’과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들려주었다. 현악4중주 연주단의 연주는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피아노 앙상블 연주를 균형감 있게 받쳐주었다. 클랑의 마지막 두 곡은 라벨의 ‘볼레로’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였다. 라벨의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작품인 ‘볼레로’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으로, 점진적으로 더해지는 리듬 속에 격렬함이 묻어 있다. 8명의 피아노 앙상블에 퍼커션이 더해져 요묘하면서도 극적인 연주가 완성됐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까지 연주를 모두 마친 클랑의 연주자들에게는 박수가 쏟아졌다.

피아노앙상블클랑은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올해 첫 후원을 받았다. 결연사인 제이엘렌은 김해에 자리한 떡케이크 전문업체로 하우스콘서트에서 클랑 단원들을 보고 먼저 후원을 자청했다. 떡처럼 찰진 인연이 계속되길 바라본다.



05 아름다운 동행

다채로운 공연 구성 객석에선 연신 ‘앵콜’

(주)고려철강 후원

2017 경상남도 전통예술단체 송년음악회

세상에서 가장 느린 노래, 우리 가곡을 전승·보전하는 국내 유일 가곡전수관(관장 조순자)이 창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2006년 9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설립된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전수관(이하 가곡전수관) 이야기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표 공연 목요풍류와 각종 기획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났던 가곡전수관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지난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송년음악회 ‘악(樂)으로 함께 여는 새 날, 우리 음악 우리 춤’을 마련했다.

가곡전수관 국악연주단 정음과 푸르미르청소년예술단을 비롯,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단체 아랫넛수록제보존회, 세종국악회관, 풍물패 소리바디 등이 함께 만든 무대가 공연시간 100분을 꽉 채웠다. 국내외 가장 ‘핫’한 연주자이자 민요록밴드 ‘쌍쌍밴드’를 이끄는 경기소리 명인 이희문과 뽐뽐브라덜이 특별 초청 연주자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공연 전 대극장 앞 로비가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공연은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다. 불교음악인 범패의 시작을 알리는 북 ‘홍고’ 연주가 단아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어 불보살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찬탄하는 의식의 일종으로 선보인 ‘다계작법무’는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연상시키며 종교적 의미를 떠나 신비로우면서도 이국적인 인상을 남겼다.

아랫넛수록제보존회의 첫 무대에 이어 송년음악회를 주최·주관한 가곡전수관 소속 푸르미르청소년예술단의 정재(呈才) ‘초무’와 ‘가인전목단’이 이어졌다. 정재는 과거 궁중에서 무동(舞童)이나 기녀들이 추던 춤을 일컫는 말로 무대화된 이후에야 일반에게 공개돼 즐길 수 있게 됐다. 초무는 춤의 시작을 알리는 2명의 무동이 추는 춤이며, 가인전목단은 순조 때 효명세자가 지은 것으로 모란꽃을 가운데 놓고 무인들이 주위를 돌며 추는 춤이다. 공연을 선보인 푸르미르청소년예술단은 가곡전수관에서 6개월에서 5년 간 전통가무악을 익혀온 우리 지역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 재학생들로 구성됐다. 앓된 얼굴의 학생들이 추는 춤이지만 어느 프로무용단 못지않은 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공연의 백미는 단연 가곡전수관 국악연주단 정음의 연주였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비파, 생황, 단소 병주로 물에서 노니는 용의 노래라는 뜻의 ‘수룡음’을 들려준 후, 가곡 계면조 농 ‘복두’, 가곡 계면조 편식대업 ‘나랏말싸미’를 차례로 연주해 전통음악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느리고 편안한 전통음악이 전반부였다면, 후반부는 빠르고 신나는 퓨전음악으로 구성했다. 특히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화제가 된 소리꾼 이희문의 경기소리는 객석에서 연신 ‘앵콜’이 터져 나오게 할 정도로 관객을 들었다 놔다 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종국악회관 연주단의 ‘프론티어(Frontier)’, ‘걱정말아요 그

대’, ‘Time to say good arirang’과 마지막 곡인 ‘춤추는 아리랑’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연주와 팝핀, 현대무용, 난타, 비보이가 함께 어우러져 지루할 틈 없는 100분이 흘렀다.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박기영 씨(69)는 “다채로운 공연 구성에 넋 놓고 즐겼다.”며 “이런 송년음악회라면 매년 와도 좋을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연을 주최·주관한 가곡전수관 조순자 관장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감사하다.”며 “가곡전수관을 비롯해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결연기업인 (주)고려철강과 경상남도, 창원시, BNK경남은행, (주)에드테크, 범한산업(주), 봉림재단, 마산지역고교총동창회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소리꾼 이희문과 뽐뽐브라덜

Interview

후원 넘어 동행 ... 함께 가는 그 길에서

행복한 만남_ the큰병원 박창석 + 창원미협 천원식

깊어가는 가을 창원 미술인들의 창작열도 결실을 맺었다. <2017 창원미술대제전>이 10월 25일 창원 성산아트홀 제 1, 2, 3, 6 전시실에서 개막한 것. 한국미술협회 창원지부(이하 창원미협)의 34번째 정기전으로 공예, 디자인, 서양화, 한국화 등 8개 분과 220여 명의 회원 작품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 해의 가장 큰 행사다.

18일 개막식에서는 창원 미술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천원식 창원미협회장이 한국에 총상, 김태홍 서양화가가 창원미협 미술인상, 우순근 한국화가가 창원미협 창작상을 수상했으며 박창석 창원 the큰병원 행정이사과 이재철 ㈜구구 대표가 감사패를, 김상문 경남미협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공로패는 천원식 회장이 직접 조각한 것으로 수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개막식 당일 행사를 후원한 결연기업 the큰병원 박창석 행정이사과 천원식 창원미협회장을 함께 만났다.

Q 창원 더큰병원과 창원미협이 결연을 맺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결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박창석** • 결연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8년차인 셈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창원미협 회원들 워크숍에도 따라가서 소소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결연을 시작하게 된 건 2010년부터였습니다. 더큰병원이 2009년 12월 진료를 시작했고 2010년에 병원 내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쉼갤러리’를 개관했거든요. 갤러리 오픈과 함께 창원 미술협회와 지금은 합쳐졌지만 당시 마산미술협회 두 곳과 결연을 맺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창원아시아미술제’를 후원했습니다. 이후 창원미술협회 정기전에서 규모를 확장해 이름이 바뀐 창원미술대제전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더큰병원은 창원미협 외에도 2012년부터 진해 아르까뎬버오케스트라와도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 **천원식** • 더큰병원의 후원으로 창원미술대제전이 가능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덕에 3년 전부터 전시장을 크게 늘려 지금은 성산아트홀 1, 2, 3 전시실과 6 전시실까지 총 4개의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업과 단체를 매개하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역할이 있었고요. 사실 예술가들은 혼자서 작업하기 일쑤라 안주하기 쉽고 피해의식도 큰 편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기에 저희로서는 두 곳 모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저희 창원미협에서는 후원해주시는 더큰병원에 매년 4~5점의 작품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Writer. 손상민 Photographer. 메세나





창원미협 회장 천원식

Q 2017 창원미술대제전은 어떤 행사인가요.

—— 천원식 • 창원미술대제전은 창원 지역 미술가들이 한 해 동안 작업한 작품들 중 전시를 원하는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편인데 이렇게 함께 전시를 함으로써 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품들은 도록으로 만들어 공유하고요. 창원미협 회원이 약 430여 분인데 이번 대제전에는 220여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시를 원하는 작가들이 많아 그간 창원미협 정기전 중 역대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두 곳의 전시실에서 소품 위주로 개최하던 것과 달리 3개 전시실에 30~50호 크기의 작품으로 마련해 규모를 키웠고요. 제 6 전시실에는 10호 미만의 소품을 위주로 한 ‘에피소드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Q 창원더큰병원의 숲갤러리는 경관이 좋은 건물 8층에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고 전시도 웬만한 갤러리 못지않게 꾸준히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숲갤러리의 전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박창석 • 숲갤러리는 창원더큰병원, 김해더큰병원 두 곳 건물 모두에 독립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2달 간격으로 꾸준히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내년까지의 전시 일정이 모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전시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2014년 전시 작가였던 윤형조 작가의 작품은 전시작품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간 예술교류 측면을 고려해 전국 작가를 대상으로 초대하지만 아무래도 지역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 천원식 • 작가들에게는 무료 전시와 홍보가 큰 혜택이 됩니다. 요즘 작은 갤러리들이 난무하면서 갤러리형 카페들에 전시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소규모 갤러리형 공간들에 대한 전시는 반대합니다. 무료 전시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인테리어 상 필요한 도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애써 만든 작품을 공짜로 전시하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식인데 작가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숲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에게 소중한 전시기회를 주고 있어 바람직합니다.

“ 2010년부터 시작한 결연 올해로 8년차 ”

Q 숲갤러리 초청 작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작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알려주세요.

—— 박창석 • 작가들은 주로 제가 직접 부산, 대구, 경남 아트페어를 다니면서 발굴합니다. 신진작가 위주로 소개하려 노력하지만 자신의 작업을 한 차원 높이려는 중견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너무 큰 작품은 전시하기가 어려워 대체로 작거나 중간 호수 작품을 선호하고 어둡거나 난해한 작품 역시 전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에게 밝고 온화한 느낌을 전달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숲갤러리 초대 작가에게는 무료 대관기회와 리플릿 제작비, 언론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직접 전시 작가들을 발굴하러 다니신다고 하니 미술에 대한 조예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 박창석 • 제 스스로가 미술작품들을 워낙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30점 정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올해 전시 작가 중 한 분에게는 전시 이후 연락이 쇄했다고 합니다. 상업 갤러리처럼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숲갤러리의 공공성으로 인해 지역민에게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 발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미술 외에도 음악을 좋아해서 경남오페라단 집행이사과 여성합창단 그린쇼콰이어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 천원식 • 워낙 예술을 좋아하셔서 작가들과의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워크숍에도 오셔서 함께 하실 정도니까요. 기업의 후원과 관심은 홀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 지역 병원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보다 오랫동안 창원미협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the큰병원 행정이사 박창석

Interview

채웠다가도 다시 비우는
자연이 최고의 선생

CEO를 만나다_ 원광종합건설(주) 조성제 대표

Writer: 손상민 Photographer: 메세나

지난 12월 4일 마산회원구 BMK경남은행 1층은 은행 마감시간 즈음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 1층 로비 한 편에 자리한 갤러리 전시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원광종합건설(주) 조성제 대표의 7번째 전시회이자 4번째 사진집 <대칭(Symmetry)> 출간기념회가 이날 열렸다. 입구에서 나눠준 리플렛에는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꼭 축하물품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사)경남장애인재활협회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예금주명이 경상남도 장애인재활협회인 계좌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작은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다. 그의 사진이 실린 2018년 달력과 사진집 역시 판매금액을 기부함에 넣도록 상자를 마련해 두었다.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라 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이면서 전업 작가 못지않은 전시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성제 대표를 전시·출판기념회 다음날 다시 만났다.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 발족 당시 직접 전화해 사진학술연구회와 결연... CEO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문화예술단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랜 기간 지원 가능할 것”

조성제 '대칭(Symmetry)'



원광종합건설(주) 대표 조성제

Q 개인적으로 소장하고픈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관람하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도 클 것 같은데 전액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화환을 받지 않고 장애인재활협회에 직접 후원하도록 계좌를 알려주는 안내문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 3년 전 <천년의 전설 우포> 사진전에서 전시된 모든 사진이 팔렸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재활협회에 성금으로 기부했어요. 2007년도에 첫 사진전을 열었는데 당시 화환이 2~3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침 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을 맡은 상황이었는데 장애인들 중에도 구필가, 족필가, 시인 등 예술가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화환을 보내려면 큰 돈은 아니어도 돈이 드는 일이니 그 대신 현금을 보내주면 모은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기금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으로 제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어요. 매년 2~3명의 장애인을 선정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는 진주 장애인재활센터의 시 동아리 회원에게 개인에세이집, 단체 시집 출간을 지원했습니다.

Q 경남장애인재활협회를 오랜 기간 후원하셨습니다. 경남메세나 협회를 통해 사진학술연구회를 지원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시게 됐나요.

• 경남장애인재활협회는 최충경 회장이 회장으로 계실 때 제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회장으로 있다가 최충경 회장이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가셔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최충경 회장을 보면서 인생 수업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사업하는 선배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몸소 보여주시는 셈이어서 제게는 큰 배움이자 공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진학술연구회 결연은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가 처음 발족될 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진행했어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시작한 10여 개 팀 중 남은 건 3개인데 그 중 하나가 저희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후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CEO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문화예술단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랜 기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매칭은 오래갈 수 없어요.

Q 봉암갯벌,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특별히 습지를 찾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 작업 공간은 또 어디가 될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사진전을 하기 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복잡한 이미지의 사진보다는 걸어두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둘러보니 제 주변에 습지가 있었고 습지는 언제든 가서 찍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항상 나를 발견하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봉암갯벌은 첫 전시 주제였고 우포늪은 일주일에 2~3번 씩 5년 간 찾아다니며 작업한 결과를 지난 2014년 사진전에 담았습니다. 주남저수지는 꾸준히 제가 찾는 곳이고요. 욕심이 있다면 언젠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순천만습지를 사진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워낙 바쁘다보니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남저수지를 아직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작업해도 다 못할 정도예요. 주남저수지 안에서만 해도 엄청난 주제와 소재들이 넘칩니다. 주남, 상남, 동판저수지 모두 풍광이 수려하고 창원이라는 도시에서도 근접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다만 우포늪처럼 이야기 꺼리가 없고 시에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Q 건설업체 대표로서 생태사진가로서 빈틈없는 삶을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버거운 일인데 둘을 함께 하는 일상은 어떤 것인지요. 또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두 역할이 충돌하지는 않았나요.

• 사람들 중에는 아침 일찍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저는 출근 2~3시간 전에 주남저수지를 빙 돌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느낀 점은 자연은 한 번 보여준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가야합니다. 그곳 자연과 친해져야 안보이던 것도 새롭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개발에 대한 생각은 첫 전시 대상이었던 봉암갯벌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봉암갯벌은 60~70년대 주변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면서 생태계 파괴가 심했습니다. 악취와 오폐수로 썩어가고 있었죠. 2000년에 들어서야 갯벌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갯벌이 살아나자 철새가 날아오고 갯벌생물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연은 개발에 밀려 항상 후순위였는데 이때 처음 자연이 사람에게 양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찍은 봉암갯벌 사진 전면에는 왜가리, 백로 같은 철새가 있고 뒤편에

는 공장굴뚝이 있잖아요.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법을 봉암갯벌을 통해 확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안에서도 건설업체 대표와 생태사진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Q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새벽마다 주남저수지를 찾으며 전업사진가 못지않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대표님에게 자연은 그리고 사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 사람은 명예를 쫓기도 하고 돈을 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혼자서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자기만의 시간, 공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새벽녘 주남늪을 걸을 때 저는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물풀, 새들과 대화도 합니다. 잘 잤냐, 잘 있었냐 물어보지요. 회사에 오면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일에 파묻혀 지내고요. 추운 겨울 벌벌 떨어가며 촬영을 하면서도 습지가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에 늘 감탄합니다. 안개가 많이 낄수록 신비감이 배가 되요. 안개는 온도차가 높을 때 많이 낄니다. 13도 이상 차이가 날 때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 각각 어떤지 모두 기록해 뒀요. 계절 변화, 온도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려면 자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우포늪 사진을 찍을 때 처음 3개월

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관련 책들을 모두 읽고 포토존 찾고 자연을 관찰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어요. 자연을 관찰하면서 피사체라는 생각보다 제 자신의 멘토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새싹이 나와 잎들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지나면서 낙엽이 내려앉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고요해집니다. 다시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잎이 돋지요. 이를 제 자신에게 대입해 봤습니다. 채울 줄만 알았지 비울 줄은 모른다고요. 자연처럼 채웠다가도 금세 비울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원광종합건설(주) 조성제 대표는 2007년 ‘습(濕)’을 시작으로 7번의 개인전과 4권의 사진집을 발간한 경남에서도 손에 꼽히는 생태사진가이다. 결연단체인 경남사진학술연구회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전시 수익금을 모아 만든 ‘조성제 장애인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매년 2~3명의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외에 경남현대사진국제 페스티벌 상임위원장과 경상남도 장애인재활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Writer. 손상민 Photographer. 메세나

Interview

공연의 선순환 휴(休)가 앞장선다

예술인을 만나다_ (사)국악관현악단 휴 송철민 대표

“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비를 아끼고
모자라면 사비를 털기도 해요.
좋은 공연은 앵콜 요청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플러스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한파에 잔뜩 움츠러든 11월 18일 오후 3시 마산회원구 오동동 문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컬러풀 창동 국악과 비보이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졌다. 새벽에 내린 비로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찬바람까지 생생 부는 문화광장에는 족히 스무 명은 넘는 출연진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며 공연을 이어갔다. 공연장 앞 임시로 마련된 객석은 채워지지 못한 채 대부분 비어있었지만 한 번 자리에 앉은 관객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를 따라온 5살 남짓 꼬마아이는 무대 앞에서 연신 휴대폰으로 영상을 남기느라 바빴다. 이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무대, 음향을 확인하고 공연 사진까지 꼼꼼히 남기는 이가 있었다. 이 공연을 주최·주관한 사단법인 국악관현악단 휴의 송철민 대표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창동을 ‘나와바리’로 삼는 그가 잘 안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Q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생각보다 관객이 별로 없어서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 한복만 입은 채로 찬바람 맞으며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공공 언 아스팔트 바닥에서 고난도의 동작까지 소화하는 비보이 출연진들의 공연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무척 밝은 표정들이어서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 저희 단원들은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간 50여 회의 공연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500회 공연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꼴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 셈인데 그때 단원들이 많이 단련이 됐어요. 제가 20대에 해외공연을 매년 다녔습니다. 3~4일 공연연습하고 40일 넘게 공연하러 다니면서 공연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몇 개월 준비하고 한 번 공연하고 끝냈다 이걸 즐거울 수 없거든요. 제대로 된 레파토리를 만들고 수차례 공연을 하다보면 상황이 어찌됐건 무대가 즐거워집니다.

Q 오늘 공연에서는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탭댄스와 국악을 함께 무대에 올리기도 하셨는데요. 지역에서 볼 때 국악관현악단 휴는 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표님 자신은 어떤 무대를 지향하고 계신지요.

• 지역에는 고정 레파토리가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공연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데 고정된 레파토리를 매년 반복합니다. 패러다임은 이미 오래 전에 바뀌었어요. 그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관객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단체들이 행위자, 공연자 위주의 공연을 하고 있어요. 공연은 퍼포먼스입니다. 국악이 공연장에서 연주되고 퍼포먼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병풍 치고 돛자리 깔고 연주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한 만큼 국악공연도 변해야 하는데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공연에서 미디어를 동원하고 다른 장르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곡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인 요소와 음악이 함께 무대를 채우면 관객들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즐깁니다.



(사)국악관현악단 휴 대표 송철민



Q 공연기획부터 음향, 연출, 사진촬영까지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금 연주자이기도 하시죠. 연주자로서 또 연출자로서 대표로서 송철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 10살부터 대금연주를 했습니다. 휴 대표로 활동하면서 연주 횟수는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큰 공연의 협연자로 나서는 일 외에는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하는 공연만 하는 편입니다. 어제 동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시인분의 요청으로 공연을 하고 왔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언제 또 그런 부탁을 들어드리겠어요. 의미 있는 공연에는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공연기획은 사업을 속속들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봤지만 일이 더 많아져서 제가 합니다.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자가 공연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저희 단체에는 대표인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할 수밖에요.
- 음향에 대해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요. 지역에서는 국악의 음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엔지니어가 드문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음향 잡느라 하루 종일 리허설을 하기도 했어요. 조명도 마음에 들 때까지 물고 늘어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정을 알고 저란 사람을 겪어본 스타일이 맞는 업체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Q 국악관현악단 휴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서는 드물게 국내 최고의 출연진을 섭외해 공연하고 관객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결은 뭔가요.

- 지역에서는 이미 휴를 부르려면 공연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웃음) 공연자들 개런티를 최대한 챙겨주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연예산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난 십년 간 공연비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개런티는 세 배가 올랐으니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저는 국내 최정상급들을 우선 찾아요. 오늘 온 비보이팀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실력 있는 팀이에요.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도 대부분 공연장소가 복지관이었지만 아나운서를 데리고 가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공연을 보신 복지관 분들이 이런 공연 처음 본다 그랬어요. 왜 거기 계신 분들은 재능기부나 취미로 하는 분들의 공연만 보셔야 하느냐,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자 걱정하고 좋은 공연 만들었습니다.



Q 공연비가 상당할 텐데요.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오시려면 연습 시에 드는 비용도 클 테고요.

- 물론 인맥을 동원할 때도 많아요. 살아남아 공연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소개받으면 기존 보다 조금 적은 개런티라도 찾아와줍니다.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제 사비를 털기도 하고요. 협연 시 연습비를 줄이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각자 연습하고 녹음, 녹화한 걸 서로 교환해서 연습하고 소통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연비를 아끼고 모자라면 제 사비를 털기도 해요. 좋은 공연은 앵콜 요청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플러스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예술단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 저는 휴를 통해 좋은 공연을 만들면 예술단체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Q 앞으로 휴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차후 어떤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신지 휴는 어떤 단체로 자리매김하길 원하시는 지 말씀해 주세요.

- 20대 시절 10년 넘게 유럽을 왕복했습니다. 공연을 하러 가보면 도시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에딘버러는 함안 같은 도시인데 전세계적 페스티벌을 열어요. 창원은 그에 비하면 큰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공연도 충분히 가능해요. 세계적인 공연을 보여주면 관객도 세계적인 수준이 됩니다. 휴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향후 휴가 준비하는 공연은 국악과 랩의 협연이에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국악과 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늘 최정상 협연자를 찾았듯 이번에도 열심히 최정상 래퍼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물색 중입니다. 그 외에는 꾸준히 휴만의 곡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스무 곡 정도 보유중인데 차차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음악극도 준비 중이고요. 판소리를 15~20분 정도로 줄여서 관현악단 연주로 더욱 풍부하게 들려주는 공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해 세계적인 공연을 만들자는 목표도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국악관현악단 휴는 1998년 결성되어 매년 정기공연, 기획공연, 초청공연, 찾아가는 공연 외에도 사천세계타악축제, 산청세계의악엑스포, 합천대장경축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 매년 초청돼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국악연주단체다. 또한 해외 교류음악회, 초청음악회 등 국내외에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클래식, 재즈, 프리뮤직 등 인접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교민을 위한 해외공연

“하얏게 불태웠어”

새벽 3시 40분 공항으로 출발

여행은 늘 설레는 일이다. 하물며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하는 첫 베트남 여행이었으니 설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포항 지진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수는 다음날인 24일 이른 새벽 3시 40분. 자는 등 마는 등 밤새 뒤척인 후인데도 공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렇게 떨리고 흥분된 가슴을 안고 창원시남성합창단 단원들과의 3박5일 첫 베트남 해외공연을 위한 발자국을 땀다. 오전 8시 비행을 시작한 비행기는 4시간 50분이 걸려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다. 하노이 공항에 내려 바라본 풍경은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를 만큼 과거 우리네 모습과 비슷했다. 베트남의 낯설면서도 친숙한 풍경에 취해있는 것도 잠시, 공연을 위해 하노이를 찾은 46명의 우리 합창단원들은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연습을 이어갔다.

결연단체활동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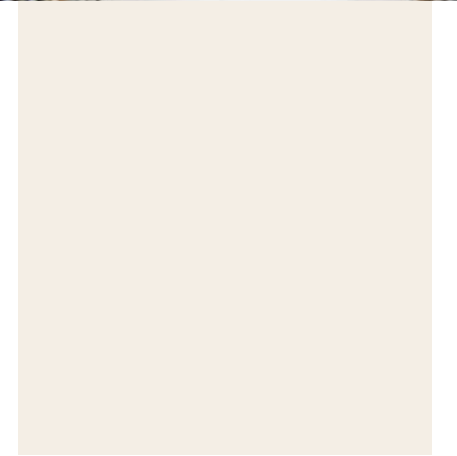
Writer. 오문성(단원 · 베이스)

공연일인 11월 26일 아침. 조금은 경직된 듯한 표정의 사람들을 만났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었다. 하노이 한인교회 4곳 중 가장 큰 규모의 교회치고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교민 수만큼은 적지 않았다. 1천여 명의 신자 중 우리의 공연을 보기 위해 객석을 채운 인원은 평소 예배에 참여하는 55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하노이가 아닌 다른 주변 지역에서 장시간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 했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베트남의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처럼 교회의 간판이나 십자가가 멀리서 보일 만큼 뚜렷하거나 교회 내부 시설이 다른 건물 내부와 다르지 않은 것 역시 베트남 사회의 일면을 짐작하게 했다. 공연 전 현지 목사님께서 준비한 5곡 이외의 곡은 하지 않았으면 하신다는 말씀도 그래서 이해가 쉬웠다. 집이 먼 까닭에 서둘러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물론 공연을 마친 후에 객석의 반응이 좋아서 '1곡 더'를 청한 것은 목사님 본인이었지만.

짧은 만남 긴 이별

공연은 우리에게 대한 소개에서 시작했다. 창원시남성합창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난 후 우리는 공연장이라 하기에는 민망한 예배당의 맨 앞 'ㄱ'자 모양의 모서리가 있는 정중앙에 계단식으로 서서 자리를 잡았다. 양쪽으로는 통로가 나있는 한 가운데에 비좁게 선 46명의 우리 단원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합창을 시작했다. 첫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 중 '순례의 합창'이었다. '순례의 합창'은 로마에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들이 부르는 합창곡으로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화음부가 일품인 곡이다. 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 '주는 내 피난처' 'I Love you lord' '영광의 새 이름' '축복의 길'을 연이어 불렀다.

연습에 못지않은 실력을 뽐낸 덕이었을까. 객석에서는 앵콜이 쏟아졌다. 양손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환호해 주는 교민들의 반응에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다. 객석 반응이 워낙 좋아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다시 잡고는 '1곡 더'를 부탁하셨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앵콜곡을 불렀다. "안녕히 계십시오"를 말하며 무대 뒤로 걸어가 는 우리에게 교민들은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느낄 수 있는 애절한 정과 교감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짧은 만남 긴 이별이었다. 더 많은 곡으로 더 많은 감동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힘겹게 하노이로 달려온 우리의 긴 여정에 대한 보답으로는 충분했다. 베트남 하노이 교회에서의 공연은 그야말로 '하얏게 불태웠던' 공연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창원시남성합창단 + 현대공영(주)

창원시남성합창단은 2006년 음악을 사랑 하는 사람들이 모여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창단되어 현재 76명의 단원이 야간에 모여 연습하고 자비를 털어 공연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감동의 소리를 전해주는 재능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시남성합창단의 결연기업인 현대공영(주)와는 2014년부터 인연을 맺어 정기연주회, 야외연주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회 등 공연의 지평을 넓혔다. 현대공영(주)(대표 진종신)은 1994년 설립돼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계통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의 건설한 중견기업이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2017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



10th Anniversary

완연한 가을날이었던 9월 21일 오후 6시 창원 리베라컨벤션 7층 그랜드볼룸에서는 ‘2017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열렸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손교덕 회장을 비롯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도내기업인, 예술인,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결연을 축하했다.

2007년 79개 기업에서 시작한 경남메세나협회는 2013년 100개 팀 결연을 달성하고 10주년인 올해 145개 팀이 인연을 맺어 또 한 번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18개, 중소기업 127개 팀이 결연을 맺었고 이중 신규 결연 팀만 45개에 이른다. 7개 대기업은 한 곳 이상을 맡아 18개 예술단체와 결연을 했다. 경남은행 7곳, 농협경남본부 3곳, 한국남동발전 4곳, 무림페이퍼,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산업, 효성은 각각 한 곳씩 후원했다.

결연금액 또한 최대였다. 총액은 22억8000만원(2017년 9월 현재)으로 회원 기업들이 13억7000만원을 후원하고 경남도가 7억원, 창원시가 1억원, 김해시가 5000만 원을 지원했다. 고성군과 함양군도 1500만원씩 지원했다. 여기에 경남메세나협회도 3000만 원을 보탤다. 올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손교덕(BNK경남은행장)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지난 10년을 단단히 지탱해준 원동력인 회원사에 감사드린다.”며 “예술과 기업의 가교역할을 위해 늘 처음처럼 매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답하듯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며 “기업은 창조적 에너지를 전달받고 예술단체는 안정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경남메세나협회에 감사드리며 도가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내외빈 인사말이 끝난 후 참석 기업인과 예술인들은 결연식의 하이라이트인 청홍색 머플러를 서로의 목에 걸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머플러 교환식은 전통 혼례에서 신랑신부의 결합을 청실홍실

을 엮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 기업과 단체의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다. 메세나 결연 사업을 통해 기업은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식전 공연으로 연주된 경남국악관현악단 휴의 모듬북 협주곡 ‘스툼’은 웅장하고 화려한 연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경남국악관현악단 휴의 반주로 안무가 구은혜의 현대무용과 소리꾼의 판소리 공연 등이 이어진 축하공연도 결연식 행사의 흥을 돋우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 창립했다. 이듬해 기업과 예술단체 29개 팀을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결연을 늘렸다. 북성산업, 원광종합건설, 청아의료재단 등 3개 업체는 창립 시작부터 10년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경남메세나협회를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 국내 1호로 선정하 바 있다.



2017 GYEONGNAM MECENAT AWARD

Writer/Photographer. 메세나



2017년 경남메세나대회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 창원 풀만 호텔에서 개최됐다. 메세나대회는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기업과 개인을 시상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이끌어 갈 예술 영재들을 선정, 예술영재상을 시상하기도 한다. 이날 행사에는 결연기업과 유관기관, 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자로 나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창립 10주년을 맞는 2017 경남메세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창립 당시에 비해 15배 이상 성장한 것은 기업의 아낌없는 성원과 경남메세나협회의 뜨거운 열정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말로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메세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7년 메세나대회 대상은 (주)무학

2017년 영예의 대상은 (주)무학(최재호 회장)이 수상했다. (주)무학은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전시 활성화를 위한 굿데이 갤러리를 개관, 순수미술 청년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좋은데이 미술대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메세나인상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의 우수 예술인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이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에게 돌아갔다. 문화공헌상은 (유)상화도장개발 이년호 대표이사에게 문화경영상은 (주)오엔이 이종호 대표이사에게 Arts&Business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 이기섭 지사장과 따소리문화예술단 정승화 대표에게 각각 수여됐다. 장차 예술계를 이끌어갈 유망주에게 주는 문화예술 영재상은 김주혁(17·서울예고 1년, 오보에), 송예빈(18·진해세화여고 2년, 판소리) 학생이 수상했다.

문화예술 영재들의 축하공연

한 해 동안 애써준 결연기업과 결연단체를 위한 자리인 만큼 축하공연도 풍성했다. 먼저 식전행사로 예술영재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실력을 뽐냈다. 송예빈(판소리)은 흥부가 한 대목을 불렀다. 흥부가 형인 놀부에게 쫓겨나 자식들이 몇날 며칠을 굶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 형 놀부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가 곡식은커녕 매만 실컷 얻어맞는 대목을 구성지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김주혁(오보에)은 영화 ‘미션’의 O.S.T.로 유명한 ‘가브리엘 오보에 (Gabriel's Oboe)’를 연주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을 오보에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청아한 음색으로 연주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경남솔로이츠 오케스트라(단장 김윤아)의 축하공연은 여느 공연장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임재홍의 섬세한 바이올린 연주와 소프라노 성정하, 테너 김성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

경남솔로이츠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과 화합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여러 대의 악기와 연주자들이 합심해 내는 화음이 예술로 꽃 피우듯 기업과 예술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사회의 ‘불통’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2017년 한 해에도 경남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기업인, 예술인들에게 힘찬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17 경남메세나대회를 빛낸 수상자들

올 한 해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결산하는 **2017 경남메세나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기업과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역대 최고였던 메세나 145개 팀 결연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 층 더 끌어올리는

초석이 되었기에 2017년 경남의 문화예술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올해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경남메세나를 빛낸 수상자와 미래의 꿈나무인 예술영재를 만나본다.



2017 경남메세나 대상

(주)무학 **최재호** 회장

‘문화의 길’ 조성 시작으로 문화기업의 길로 들어서

지역은 물론 전국 예술인·단체 후원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1929년 창립하여 88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남의 대표기업 ‘(주)무학’은 2001년 최재호 회장 취임 이후 활발한 메세나 활동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0년 무학공장 일대 담벼락을 갤러리로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으며, 2011년 기존의 장학재단을 확장한 ‘좋은데이 나눔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문화예술 후원에 나섰다.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문화기업의 길로 들어선 (주)무학은 2015년 ‘굿데이뮤지엄’을 개관하며 정점을 찍었다. 굿데이뮤지엄은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류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주류박물관으로서 짧은 시간에 경남의 주요 문화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주)무학의 미술계 후원 역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2011년부터 전국 대학생 공모 ‘좋은데이 미술대전’을 개최해 젊고 재능 있는 미술인들을 발굴·후원하여 작가로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2015년에는 사내에 ‘굿데이갤러리’를 개관해 소장품 전시는 물론 지역 미술인들의 전시 장소이자, 지역민들이 양질의 미술작품들을 관람할 문화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경남 최대의 아트페어인 ‘경남국제아트페어’를 초창기부터 후원하며 미술작품의 전시와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도 하고 있다. 그 외 ‘경남미술협회’, ‘진주 정수예술촌’, ‘경남100경100작품展’ 등을 지원하며 순수미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전통문화, 나눔활동 등에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다.



메세나인상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2011년 국내 최초 지역 우수 예술인 발굴
‘메디치 코리아’ 결성

이재철 대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일찍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왔다. 1억 기부자 이상을 회원으로 하는 ‘아너소사이터티’에 가입, 고액기부를 자처하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들이 지역 공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섰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작가들을 후원하던 중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메디치 코리아’를 결성했다. 메세나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딴 메디치 코리아는 CEO, 교수, 의료인 등 20여명의 미술애호가들로 구성된 지역의 우수 미술인을 발굴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부터 ‘메디치상’을 수상한 미술가에게는 뉴욕 등 해외유수 갤러리 전시와 국내전시 기회가 주어져 미술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재철 대표의 폭넓은 후원은 취약계층, 예술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희망이 되고 있다.

문화공헌상

(유)상화도장개발 **이년호** 대표

(주)대한크로마하프연구협회에
25년 동안 변함없는 후원

(유)상화도장개발(대표 이년호)은 지난 1983년 설립된 이래 30년 넘게 도장 전문 외길을 걸어오면서 경남의 대표 도장업체로 성장했다. 이년호 대표는 기업을 일구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56개 사회단체에 소속, 그중 19개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 대표의 문화, 예술, 사회단체에 대한 후원은 오래됐다. (주)대한크로마하프연구협회 이미에 단장과는 25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다. 2011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정식으로 결연을 맺고 보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대한크로마하프연구협회가 23회째 크로마하프양상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7년째 동남아시아 난민촌에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년호 대표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오카리나 악기 전달, 성피해여성 음악치료에도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 그린쇼콰이어, CWNU윈드오케스트라와도 인연을 맺어 후원을 지속하는 등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돕고 있다.



문화경영상

(주)오엔이 **이종호** 대표이사

“문화예술이야말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

(주)오엔이(대표 이종호)는 김해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지난 201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쓰고 남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이종호 대표는 ‘문화예술이야말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이라는 생각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2009년 경남메세나협회 가입 후 9년 동안 후원을 지속하며, 2014년부터는 2개 이상 단체와 결연을 맺어왔다. 또 지역의 어려운 예술단체를 골고루 후원하기를 원하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매년 다른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기악, 성악, 미술 등 분야나 인기, 비인기 장르를 가리지 않는 후원도 이러한 이 대표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주)오엔이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회원사로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힘들게 단체를 꾸려가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예술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단 한 단체라도 무대 위에서 전시장에서 그들의 열정을 마음껏 뽐내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대로 결연단체들의 약진을 바란다.

Arts&Business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 지사장 **이기섭**
따소미문화예술단 **정승화** 대표

매월 전직원이 사회공헌활동
따소미문화예술단 후원에도 적극적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지사장 이기섭)와 따소미문화예술단(대표 정승화)은 지난 2015년 결연을 맺었다. 김해지사는 지역난방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 한마음학원 오페라 공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영아티스트 콘서트 등 따소미문화예술단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평소 오페라를 접하기 힘든 지역민들에게 오페라 연주를 들려주는 따소미문화예술단의 공연은 시민들이 오페라에 한층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에 일조했다. 또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신진예술가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해지사는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와 인프라가 부족한 김해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그 외 김해지사는 매년 2천만 원 이상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매월 전 직원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예술영재상

오보에 **김주혁** /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서울예고 수석입학
초등시절부터 음악적 감각 탁월

맑고 청아한 음의 오보에로 연주되는 첫 소절이 나오자 눈길은 자연스레 무대로 향했다. 영화 <미션>의 메인테마곡으로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를 연주한 이는 올해 예술영재상을 수상한 김주혁 학생.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하여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혁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악기를 잡은 후 꾸준한 노력으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악보를 조옮김해서 연주할 정도로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김주혁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능기부를 하기도 했다. 창원중학생 종합학예발표대회 목관독주 최우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동문회 콩쿠르 오보에 중등부 1위, 코리아헤럴드 콩쿠르 오보에 중등부 1위, 경남 중등학생 종합학예발표대회 목관독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명실공히 유망주임을 증명해 왔다. 현재는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 오보에 수석으로 활동하며 정기연주회 등 각종 공연에 참여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예술영재상

판소리 **송예빈** /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타악과 판소리 모두에 두각
국악계 유망주

자그마한 몸집에서 뿜어 나오는 목소리가 심상찮다. 좌중을 휘어잡는 1인 엔터테이너로서 손색이 없다. 2017 메세나대회 참석자들은 판소리로 예술영재상을 받은 송예빈 학생(진해세화여고 2학년)에게서 국악의 미래를 확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예빈 학생은 만 5세 때 사물놀이, 장구놀이, 전통 타악 등을 시작으로 타악에 입문했다. 만 6세 때는 타악과 함께 흥보가, 적벽가를 통해 판소리를 만났다. 일찍부터 판소리와 타악 연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0년, ‘창원 야철 전국 국악대전’에서 타악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21개 경연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다. 타악, 성악 두 분야 모두에서 고른 수상을 보여주면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여 왔다. 2016년 부산국악대전에서는 종합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내외로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는 경남메세나협회 결연단체 중 하나인 ‘예술단 락(樂)’의 청소년 예술단원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2017 행복한 문화나눔

함께라서 즐거운 문화송년회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 외 5개 예술단체
문화소외계층 찾아가 3천 여 관객 만나

연말연시 송년모임이 잦은 12월, 유독 쓸쓸한 곳들이 있다. 창원시립 치매요양병원인 사회복지법인 성심원도 그런 곳 중 하나이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해 7년 째 송년음악회를 하는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단장 차문호)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심원을 찾았다.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창원성심원 강당에는 송년음악회를 보러 온 25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공연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로 빼곡히 들어찬 강당은 연주 시작되자 더욱 활기를 띄었다.

이날 공연을 주관한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는 경남대 음악교육과 앙상블팀과 퓨전 국악가수 황인하, KERI색소폰앙상블과 함께 공연을 선보였다. 첫 무대를 장식한 경남대 음악교육과 앙상블팀은 플루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등 다섯 명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일랜드의 여인’ ‘Fly to the moon’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명곡들을 연주했다. 두 번째 소개된 국악가수 황인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달타령’ ‘백세인생’ ‘강원도아리랑’ 등을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직장 내 색소폰동아리로 활발히 활동 중인 KERI색소폰앙상블이 ‘처녀뱃사공’ ‘사랑찾아 인생찾아’를 연주해 더욱 분위기를 달구었다. 마지막 대단원은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와 꿈의 오케스트라 창원 소속 단원들이 장식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을 연주한 후 4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는 관객들에게 작지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지역주민으로 공연을 찾은 이성혜 씨(56)는 “오랜만에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내년에도 또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에 참여한 꿈의 오케스트라 손태호(9) 단원은 “올해 3월

입단해 플루트를 연주하는데 너무 재밌어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 차문호 단장은 “더 많은 문화소외지역 어르신, 아이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전했다.

(사)경남챔버쏘싸이어티의 성심원 공연 외에도 11월 22일에는 문화예술원 자람(대표 황주식)이 김해시 진영읍 소재 보육원인 진우원에서 전통놀이체험과 국악공연을, 25일에는 국악공연단체 나열(대표 김공주)이 김해동상시장에서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퓨전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12월 1일에는 나눔남성중창단(대표 김기환)이 마산회원구 소재 보육원 인애의집에서 음악회를, 15일에는 창원시품물단연합회(회장 하금소)가 마산회원구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품물놀이를 진행하는 등 총 6개 단체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문화예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행복한 문화나눔사업’은 지역 내 예술단체가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으로 매년 3천 여 명의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향유 계층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동상시장, 인애의집, 진우원에서 열린 문화나눔 공연

Enjoy Culture

도심 속 문화공간 |

고택에서 ‘야행(夜行)’하다

창원의 집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서울에서는 고궁야간개장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예매가 인기가 높다. 오죽하면 아이돌 콘서트 티켓예매에 버금간다는 말도 나온다. 예매와 동시에 매진될 만큼 인기장소인 고궁. 그에 못지않은 장소가 창원에도 있다. 바로 창원시 사람동에 위치한 ‘창원의 집’이다. 고궁만큼 넓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몸체, 사랑채, 민속교육관 등 아기자기한 내부를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야간에는 특유의 정취와 고혹한 조명이 만들어낸 경관이 특히 볼 만하다.

창원의 집 야간개장은 지난 7월부터 ‘야행(夜行)’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부터 시작했다. 매주 금, 토요일 이틀 동안 오후 8시와 9시 두 번으로 나누어 무료로 진행한다. 일방적인 설명을 늘어놓는 대신 전통예술단체 소속 단원의 유쾌한 진행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볍지만 의미 있는 체험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한 번에 20명까지인데, 선착순 인터넷 접수에 매진 사례가 이어질 정도로 여름, 가을 인기가 많다.



국제실내악축제 <두번째 달> 공연

Writer 손상민 Photographer 메세나

“

<두번째 달>과 소리꾼 고영열의 고택음악회는 고택이 주는 고즈넉함과 숲의 정취, 전통의 멋을 더해 한층 특별한 공연 경험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었다.

고영열의 구성진 소리로 들려주는 판소리 춘향가가 관람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음은 물론이다.

”



인문학콘서트 <고운, 창원의 달을 품다> 공연



‘야행’ 외에도 창원의 집을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진행된 2017 창원국제실내악축제 기간 중 크로스오버 퓨전 그룹 <두번째 달> 공연이 20일 저녁 7시 30분 창원의 집 앞마당에서 열렸다. 기다렸다는 듯 몰려든 관객들로 공연은 성황리에 치러졌다. 국제실내악축제의 두 번째 테마였던 ‘설렘’이라는 주제로 보여준 <두번째 달>과 소리꾼 고영열의 고택음악회는 고택이 주는 고즈넉함과 숲의 정취, 전통의 멋을 더해 한층 특별한 공연 경험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었다. 고영열의 구성진 소리로 들려주는 판소리 춘향가가 관람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음은 물론이다. 가족과 함께 공연을 찾았다는 지역주민 최창기(37) 씨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훌륭한 공연장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다.”며 “야간에 보는 고택의 아름다움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어우러져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창원문화재단으로 편입

창원의 집은 1898년 순흥 안 씨 5대조 되는 두철 선생이 살던 집을 보존한 곳이다. 시는 공업 도시, 신생 도시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1984년 창원의 집을 단장했다.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서 창원의 집을 활용한 지는 오래지 않았다. 최근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와 풍속을 엿보는 교육장이자 전통 혼례를 치르는 공간으로 주로 이용됐다. 창원의 집이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 전에도 행사는 간간이 이어졌다. 명절마다 ‘한마당 잔치’가 빠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창원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 후 행사 내용이 좀 더 풍성해졌다. (사)문화두레 어저구니 주최로 열리는 ‘전통문화예술축제’도 해마다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도가 높았지만 본격적인 공연장으로서의 변모는 2017년부터다. 창원의 집의 이러한 변화는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가능했다. 그동안 창원의 집을 포함한 창원역사민속관을 창원시가 관리하던데서 2017년부터는 관리주체가 창원문화재

단으로 바뀐 것이다. 재단은 첫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 창원의 집 ‘야간 개장’ 카드를 꺼내들었고 판단은 적중했다. 창원의 집이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몫 했다. 우선 시설 면에서 공연장, 체험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창원의 집 부지면적은 전체 10,209㎡(대지 7,160㎡, 주차장 3,049㎡)이고, 주요시설물로는 몸채, 사랑채, 민속교육관, 유물전시관, 팔각정, 정자, 농기구 전시관 7개동이 있다. 민속유물전시품이 171종 353점이며, 농기구전시품이 27종 452점으로서 연간 방문객수가 125천명에 이른다. ‘2018 창원관광의 해’를 맞아 마련된 창원시티투어버스 코스에도 창원의 집이 포함돼 방문객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창원의 집 앞에는 약 50여대의 승용차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공연이 있을 때도 웬만큼 관객을 수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 창원의 집에서 열린 인문학 콘서트 <고운, 창원의 달을 품다>는 창원의 집이 야간개장 뿐만 아니라 공연

장으로 손색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국악연주단 정음의 공연과 최영성 한국 전통문화대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어우러진 인문학 콘서트는 전통가옥인 창원의 집을 배경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콘서트 열풍을 확인하듯 초겨울 못지않은 추운 날씨에도 관람객은 준비된 객석을 모두 채웠다.

이색공연장으로의 변모

이날 최영성 교수는 신라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한류 선구자라고 치켜세우며 중국에 ‘최치원 기념관’이 있을 만큼 중국에서 명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대주의자로 오인된 최치원이 신라 6두품 출신으로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오히려 신라 문화를 당나라에 이식시켰다는 평가다. 그는 또 최치원 유적이 창원만큼 많은 곳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최치원이 자주 찾았다는 ‘월영대’가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강의가 끝난 후 최치원 유적지 관광 자

원을 고민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최치원 선생에 대한 관광콘텐츠화는 실제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도 하다. 11월 11일 경남대학교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원시정연구원과 경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 공동 주최한 ‘최치원 콘텐츠의 가치 조명과 창원’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창원의 집은 단순한 전통문화체험장에서 때로는 이색적인 공연장으로 때로는 창원의 미래 콘텐츠를 확인하는 인문학 콘서트장으로 활용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창원의 집 사업기획을 담당하는 창원문화재단 전통문화팀 신종률 대리는 “내년에는 야행 뿐만 아니라 고택음악회, 지역예술인지원사업,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콘서트 등을 계획 중”라며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람객 증대 및 전통문화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의 집의 2018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njoy Culture

도심 속 문화공간 II

일상 속으로 들어온 또 하나의 예술 공간

기업주도 비영리 갤러리 ... 기대만큼 과제도 커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갤러리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편한 옷보다는 차려입은 채 방문해야 할 것 같고, 왠지 모를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 갤러리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랬던 갤러리가 어느 순간 가까워졌다. 병원이나 은행,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장소 안에 갤러리가 생기면서부터다. 따로 갤러리를 방문하지 않아도 볼일을 보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고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의 삶 속에 한층 가깝게 자리 잡은 ‘일상 속 갤러리’는 이제 문화트렌드가 됐다.

“

기업, 단체가 갤러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경영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지역에 문화향유 기반을 넓히고 지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한다는 의도다.

”

Writer/Photographer. 김세정(경남신문 기자)



BNK 경남은행 갤러리

다양한 일상 속 갤러리들

갤러리를 운영하는 도내 기업, 병원, 단체로는 창원상공회의소(챔버갤러리), 경남스틸(송원갤러리), 창원·김해 the큰병원(숯갤러리), BNK경남은행(BNK경남은행 갤러리), 무학(굿데이갤러리) 등이 있다. 기업, 단체가 갤러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경영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로 지역에 문화향유 기반을 넓히고 지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한다는 의도다.

도내 기업형 갤러리는 대부분 2000년대 들어 생겨났다. 챔버갤러리가 2009년, 송원갤러리가 2012년, BNK경남은행 갤러리가 2012년, 창원·김해 숯갤러리가 각각 2010년, 2014년 문을 열었다. 1990년대 이미 기업형 갤러리가 활성화된 서울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지만 문화예술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그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건물 로비나 유희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데

다 1~2달 간격으로 꾸준히 새로운 전시를 열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단체인 만큼 갤러리는 대부분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재까지 41번의 전시를 연 챔버갤러리는 모든 전시를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꾸려왔다. 송원갤러리 또한 모든 전시를 지역작가 중심으로 열고 있다. 두곳 모두 주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 전업 작가를 초대작가로 선정한다. 창원, 김해 숯갤러리의 경우 전국에서 다양한 작가를 초대하고 있지만 지역작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BNK 갤러리는 설립 초기 지역 작곡작가, 중견작가, 신진작가 등을 대상으로 기획전, 초대전을 열었고 현재는 다양한 개인, 단체에 공간을 빌려주는 대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갤러리는 일반 상업갤러리와 달리 비영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대관 비용이 무료고 작품이 판매될 경우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보통 초대전의 경우 홍보나 리플릿 제작 등을 지원하고 일부 갤러리는 작품을 구매해주시기도 한다.



BNK 경남은행 갤러리

지역 문화저변을 넓히다

일상 속 갤러리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보기 위해 따로 전문공간을 찾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가장 좋은 점으로 평가한다. 갤러리에 대한 물리적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심리적 장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효과도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원상의 조사홍보팀 김기환(37) 대리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작가를 직접 만나고 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상의 서 6년째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원(65)씨도 “그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아주 크다. 로비에 그림이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창원상의 내 위치한 챔버갤러리는 미술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창원상의 백시출 부국장은 “갤러리 설립 전만 해도 그림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별로 없었다.”며 “갤러리가 생긴 뒤 회사 내에 그림을 걸려는 기업이



김해 the큰병원 숲갤러리

크게 늘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작가들도 대부분 호의적이다. 전문 갤러리가 많지 않은 지역 환경을 감안할 때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반갑다는 반응이다.



창원 the큰병원 숲갤러리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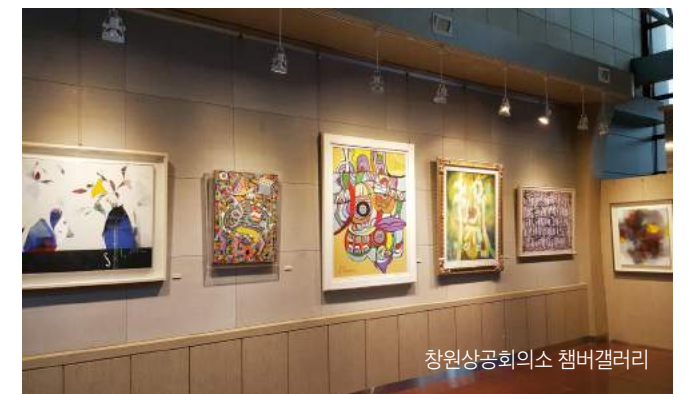
장기적인 시각으로 운영해야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시작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 갤러리 관계자들은 직원들 사기나 관람객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작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어둡거나 다소 난해한 성격의 작품들은 전시에서도, 소비에서도 소외된다.

장기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위험도 있다. 갤러리는 특성상 차지하는 공간은 넓은데 직접적인 수익은 매우 적은 편이다.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도내 일부 기업형 갤러리들이 이러한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잠정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철학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갤러리의 전문성 확보는 또 다른 과제다. 대부분 갤러리가 전문 인력(큐레이터)을 두지 않고 있어 전시 설명이나 해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시를 경험한 작가들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전문 인력은 전시 다양성 확대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점차 늘어나는 도내 일상 속 갤러리는 누구나 쉽게 미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한 미술문화 플랫폼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리움, 아트센터 나비, 금호미술관 등 국내 대표 기업 미술관들은 갤러리 규모에서 출발해 국내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운영 주체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바탕이 된다면 지역에서도 미술문화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을 갖춘 다양한 갤러리들로 한층 풍성하고 깊이 있는 도내 미술시장을 기대해본다.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은행	(주)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주)
광등종합건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농협경남본부	(주)경한코리아
(주)무학	(주)고구려
(주)센트랄	(주)고려철강
우수AMS(주)	고운치과병원
(주)인산가	광신기계공업(주)
임경숙	(주)구구
(주)한국아나세	(주)국제전기
(주)화인테크놀리지	(주)국토보상원
청호산업(유)	그린산업(주)
(주)ONE	그림갤러리(주)
경원벤티크(주)	(합자)금강전기공업사
김도기	금강중기
리베라컨벤션	금성이노텍(주)
범한산업(주)	(주)금솔개발
산골농장	(주)기산산업
신화철강(주)	김선경외과의원
원광종합건설(주)	김순태치과의원
구인모	(유)김해공영
한국민예총경남지회	낙우산업(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남명산업개발(주)
한림건설(주)	남양매직(주)
(주)현대단조	(주)네오씨티알
화성G&I(주)	대경건설(주)
the큰병원	(주)대길티에프
가야BS(주)	(주)대동주택
(주)강민종합건설	대방스페셜스틸(주)
강산기술검사	대선주조(주)
거제레미콘(주)	대신금속(주)
거제시문화예술회관	(합)대신전기공업사
거제컨벤션웨딩뷔페	대양산업가스(주)
경남개발공사	대전전선전기(주)
경남스틸(주)	(주)대호엠애플아이

(주)대호테크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명다이아몬드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동인하이텍(주)
동환산업(주)
두남화학
디씨엠(주)
디케이리크(주)
라운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운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베스트엔드베스트
(주)보강기업
(주)보덕건설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주)부일이앤씨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주)사리크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원테크(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성부가스산업(주)
(주)성우
(주)성남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오포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세노텍
아진기계
(주)에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주)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엔티
원한의원
원광산업석재
(주)웰템
유니온엔지니어링
유림건설(주)
(주)유림철강
유전공업(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녀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사보이호텔
(주)이우
(주)이앤티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장한
장남종합건설(주)
(주)정문에드테크
주용테크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주)
(주)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주)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주)
최익수의원
캠코 경남지역본부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주)케이씨
(주)코앞건설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주)태완정공
(주)태현메가텍
(주)포스텍
풀만호텔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해수종합건설(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화일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인에이티씨
(주)팬코리아중공업
(주)환웅정공
흥일기업(주)
PS엔터테인먼트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Business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공간, 티켓구매, 직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워크숍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간/문화경영도서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소의 이웃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 사업 Development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 연 2회 발간하여 메세나협회 사업소개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_ 연간 메세나 활동을 정리하고, 예술후원과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_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확대를 위해 2015년 3월 첫 시행한 예술후원 촉진 사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과 소통전 _ 기업과 미술인이 매칭을 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철학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고, 전시 후 작품을 기업에 기증합니다.

문화경영 세미나 _ 도내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을 경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성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센트랄의 노력.
기업문화의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이 책 읽어봤니?



추천도서 지급, 부서별 독서토론회,
열린독서단 활동 등
-독서경영-

나만의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임직원이 직접 테마 및 국가를 선정하는
참가자 주도형 해외탐방 프로그램
-글로벌 챌린저-

오늘은 가족과 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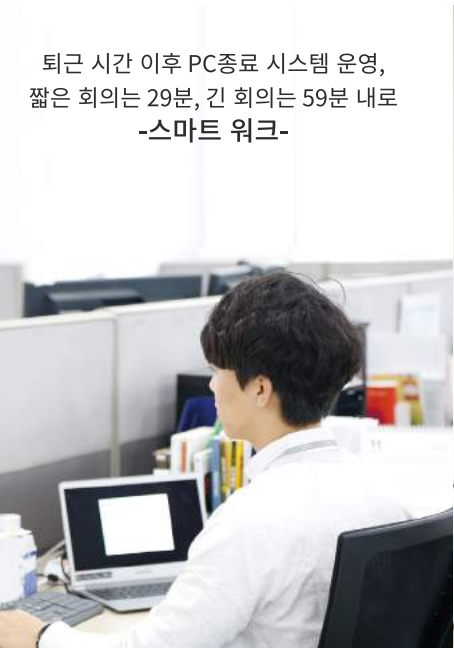
수요일은 정시(5시 30분) 퇴근
-가족사랑의 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속 휴가 사용 가능
-리프레쉬 휴가-

오늘은 여기까지.



퇴근 시간 이후 PC종료 시스템 운영,
짧은 회의는 29분, 긴 회의는 59분 내로
-스마트 워크-

존중 합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임직원
상호간 존댓말 하기
-존중문화-



고유의 품격을 지닌 ‘The New S-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경남자동차

시승 및 상담문의

창원 전시장 055-280-8300
마산 전시장 055-296-1004
진주 전시장 055-757-8118

Mercedes-Benz





대양산업가스는
미래로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문의 | 055) 551.9920

BNK Financial Group

어떤 순간이든 투유뱅크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연

BNK경남은행은?

투유 | 뱅크

여정

나 요즘 회사일이 바빠.. 매일 야근이라 은행갈 시간도 없애 ㅠㅠ

이론.. 은행방문 안해도 통장개설 가능해!! 투유뱅크 어플 깔고 계좌개설하면 예/적금 상품 가입도 되는걸?

다정

여정

금융상품은 완전 초짜인데 암거나 어떻게 가입하냐..

업무시간내에 실시간 통장담당 가능해. 그리고 무서류, 무방문으로 신용대출이랑 여행갈때 환전/해외송금도 모바일로 될거얌.

다정

여정

앗! 다음주 유럽여행하는데~ 환전도 투유뱅크에서 해야겠어!! 고마워 다정아! ㅜ

※ 관련비용 또는 당행 내부기준 등에 의해 신규 통장 개설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고객센터(1600-88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도 모바일에서 OK!

예금·적금/대출도 모바일에서 OK!

환전도 모바일에서 OK!

BNK 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스마트폰 안에 쏙!

투유뱅크

BNK 경남은행

모바일전용 서비스를 한 앱에 쏙!

투유금융

BNK 경남은행

입출금 내역 다양한 혜택정보가 쏙!

투유알림

BNK 경남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7-G-993 심의일자 : 2017.11.21 유효기간 : 2018.12.31

기업, 예술에 물들다!

요금별납

창원우체국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